21차 세계 렘넌트 대회에서 붙잡은 언약이 "미래 치유와 써밋"이다. 왜 이런 단어가 나왔을까?

앞으로 올 미래의 저주와 재앙 때문이다. 과학은 미래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날 것을 예측하고 있다. 인공 지능을 가진 로봇이 사람을 대신하고, 모든 것은 초고속으로 빨라질 것으로 본다. 전 세계를 하나로 만들고, 통제하는 시대가 오는 것이다. 불신자들이 만드는 써밋의 시대이다. 이런 세상에서 인간과 세상은 어느 정도로 타락하고 무너지냐? 성경은 아주 구체적으로 경고를 하고 있다(사60:2, 딤후3, 계시록 전체). 흑암 세력이 온 땅을 장악하고, 거기서 사람들은 고통의 시간들을 겪을 것이고, 이때 많은 교회들이 무너지고, 믿음에서 떠날 것이라고 했다. 둘째는 그러나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이 남겨 놓은 자들이 있다는 것이다. 그들이 템넌트들이다. 구약의 이사야서에 템넌트라는 단어가 가장 정확하게 나온다(사4:3, 6:13, 10:21). 하나님의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고, 개인과교회에 위기가 찾아올 때 주신 축복의 언약이 "렘넌트"라는 언약이다. 하나님이 남겨 놓은 자들이기 때문에 망할수가 없다. 망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다. 오히려 그들을 통해 세상을 살리고 치유하는 일을 하신다는 것이다. 그 일을 계시록에서 다시 강조하신다. 온 세상이 타락하고, 고통을 당하고, 무너져도 하나님이 남겨 놓은 자들이 있다는 것이다(계7:4-8, 11:13, 12:17, 14:3). 핍박을 받아 어려움을 받을 수도 있고, 잠시 사단에게 당해 실패를할 수도 있다. 그러나 그들은 반드시 승리하고(계17:14), 세상을 치유하고, 새롭게 하고, 그리스도와 함께 세상을 다스릴 것이라는 것이다(계22:1-5). 그래서 미래 치유와 써밋이다. 적어도 세가지만 분명하면 된다.

- 1. 적어도 세가지에 속지 마라는 것이다. 세가지 영적 싸움에 관한 말씀이다.
- 1) 대단해 보이고, 화려해 보이는 세상의 성공과 유혹에 속지마라는 것이다. 개인이든 나라든 하나님 없이 성공한 그들은 거짓 성공을 한 것이다. 사실상 그들의 미래는 다 비참했다.
- 2) 사단이 만든 함정, 틀, 올무에 속지마라는 것이다. 성경에 사단이 어떤 짓을 하는지 말해주는데 사람들이 모르고 산다. 감히 예수님을 유혹했다(마4:1-11). 먹는 것(의식주의 염려), 명예(자존감), 성공의 유혹(욕심)이었다. 사람들이 전부 여기에 묶여 고통을 당하고 있다.
- 3) 나 자신에게 속지 마라는 것이다. 전부 내 한계, 상처, 내 기준에서 나오는 것이다. 두려움, 염려, 절망, 분노, 다툼이 어디서 나오는가? 전부 내 욕심, 내 상처, 내 기준에서 나오는 것이다.
- 2. 하나님은 이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완전하고 절대적인 답을 주셨다. 그리스도의 언약이다.
- 1)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하고 절대적인 결론을 주셨다(요19:30)
- ① 모든 죄와 실패와 저주, 사단의 권세, 운명과 영원한 지옥 심판을 끝냈다는 것이다. 진짜 하나님이 택한 사람은 복음 듣는 순간 이 결론을 낸다. 특히 현장 살릴 전도자, 제자들은 복음 듣는 순간 바로 결론을 낸다. 하나님이 쓰실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은 이것이다. 그리스도로 결론이 났냐는 것이다.
- ② 정말 그리스도로 충분하고, 완전하고, 모든 것이라는 결론이 났냐는 것이다. 그리스도께서 제사장의 권세로 나를 축복의 근원으로 바꾸신 것이다(계1:6). 그래서 그리스도로 충분한 것이다. 그리스도께서 왕의 권세로 나를 승리자로 만들어 놓은 것이다(계17:14). 그래서 그리스도는 완전하신 것이다. 그리스도께서 선지자의 권세로 나의 길이 되어 주신 것이다(계3:8). 그래서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 되는 것이다.
- 2)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 인생의 결과를 알려 주셨다(행1:8)
- ①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고난과 재앙을 당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.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다. 뭐가 끝인가? 나 같은 사람을 살리고, 세상 살릴 증인으로 세우시겠다는 것이다. 성령을 보내신 이유다(행1:8)
- ② 본문 6절에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는 것이다. 우리를 세계복음화 할 사람으로 세우셨다는 것이다. 그 세계복음화가 이루어지고 주님은 다시 오시겠다는 것이다(계1:7).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.
- 3) 이 결론과 결과를 알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전부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과정이 되는 것이다. 요셉의 고백이다. "형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고, 하나님이 날 앞서 보낸 것이다"(창45:5-8) 복음 가진 사람에게는 어떤 문제도 문제 아니다. 미래를 향한 발판이고, 전부 하나님의 시간표다.
- 3. 이제 이 답을 가지고 오늘을 승리하고 미래를 도전하라는 것이다. 우리가 누릴 응답이고 축복이다.
- 1) 결국 오늘이 키다. 오늘 힘을 얻고, 오늘 감사하고, 오늘 승리하면 그 하루하루가 미래를 만드는 것이다. 천년은 못 살아도 천년 응답은 받아서 교회와 시대와 후대 살리며 살 수 있다. 어떻게 응답 받는가?
- ① 성령 안에서 무시로 하는 기도다(엡6:18). 우리의 생각으로 하는 기도다. 기도를 전혀 안 하는 사람도 문제지만 많은 기도를 하고도 응답 못 받는 사람은 생각이 틀려 있다. 사단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무너지게 한다(빌4:6-7). 결국 생각만큼 응답 받는다. 그것이 그릇이다(엡3:20).
- ② 정시로 하는 기도다. 시간을 정해서 하면 기도 체질이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이 말씀으로 각인을 시키는 것이다. 본문 2절에도 요한은 말씀의 증인으로 섰고, 그래서 3절에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다. 정시 기도 때에 메시지를 듣고, 정리해서 나의 언약으로 잡으라. 내 기준과 각인이 바뀌면서 응답이 시작된다.
- ③ 이때부터 예배 기도가 살아난다. 하나님은 모든 예배 때마다 응답과 힘을 주실 것이다. 예배가 곧 내 중심과 소원을 담은 기도가 되는 것이다. 거기서 24시 기도, 25시의 축복, 영원이 연결된다.
- 2) 이 힘을 얻으면서 이제 미래를 도전하는 것이다.
- 1) 우리가 도전해야 할 다섯가지 꿈이 있다. 성경 전부와 계시록에 암시하고 있는 하나님의 꿈이다. 힘을 잃어버린 교회를 살리는 꿈(계2-3장), 사단에게 잡혀 있는 세상의 성공자들을 살리는 꿈(이들로 인해 세상에 저주와 재앙이 계속된다. 일곱인과 일곱 나팔의 재앙, 계4-11장), 램넌트를 살리는 꿈(계12-15장), 의사도 해결하지 못하는 저주의 병을 치유하는 꿈(의곱 대전의 저주 16장) 강대국 삭리는 꿈(계17-18장)이다
- 해결하지 못하는 저주의 병을 치유하는 꿈(일곱 대접의 저주, 16장), 강대국 살리는 꿈(계17-18장)이다.
 2)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쓰시겠다는 것이다. WRC에서 다섯가지 도전하는 길을 설명했다. 하나님의 꿈을 내 꿈(Dream)으로 잡으라는 것이다. 그것을 나의 미래의 비전(Vision)으로 잡으라는 것이다. 내게서 나온 것이 아니다. 하나님의 언약(Covenant)이다. 이것을 말씀과 기도 속에서 분명하게 형상화(Image) 시키라는 것이다. 그리고 하나씩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일에서부터 실천하라(Practice)는 것이다.
- 결론-구원받은 우리는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써밋이다. 우리가 붙잡은 그리스도의 언약은 이미 성취되었다. 그 언약을 붙잡은 우리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고, 그 속에서 꾸는 미래 치유와 써밋의 꿈은 실현될 것이다.